

1.6kg 미숙아 심장수술 국내 첫 성공

서울대 김용진교수팀

김백남 기자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김용진 교수팀은 지난 2일 복잡한 심장기형을 가진 1.6kg의 저체중 미숙아의 심장수술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체중이 2kg 미만이면서 심한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미숙아의 수술에 성공한 것은 국내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도 수술 성공률이 매우 낮다.

김 교수팀이 수술한 아기는 지난

2월 19일 출생 당시 몸무게가 1.6kg에 불과했으며 '대동맥궁차단'이라는 선천성 심장질환이 검진됐다.

대동맥궁차단이란 대동맥이 단절돼 있는 심장질환으로 약을 통해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수술로 대동맥을 이어주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

김 교수는 "이 아기는 출생당시 심장기형으로 인해 심장 기능과 전신의 영양상태가 나빠 오히려 몸무게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여서 수술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고 밝혔다.